

진원시선

1. 김학균 / 꽃도 말을 했으면 좋겠다
2. 이한기 / 산수유 꽃이 피면
3. 홍명희 / 사람과 사랑의 꽃으로
4. 김학균 / 해질녘 망초꽃 위를 걷다
5. 랑승만 / 뿌리와 恨
6. 최재효 / 흔들리는 것은 사랑을 한다
7. 한기홍 / 가을 하늘, 고희의 캔버스
8. 한연순 / 돌담을 쌓으며
9. 랑승만 / 황폐한 집
10. 이해숙 / 추임새
11. 최재효 / 달하 노피곰 도드샤
12. 최재효 / 꽃 피고 지는 사연
13. 김지수 / 하늘 도화지
14. 홍명희 / 대 숲에서 묻는다
15. 명서영 / 시계
16. 최재형 / 할머니와 부지깽이
17. 차용길 / 맨드라미
18. 최재효 / 그대 하늘가
19. 차용길 / 소래포구
20. 장창식 / 가던 길 돌아서 바라보니
21. 배선옥 / 오래 전의 전화번호를 기억해 내다

진원수필집

1. 김석균 / 미국, 미국사람들
2. 김종웅 / 그날을 위하여
3. 배천분 / 그녀를 쫓아가는 봄빛
4. 변해명 / 길없는 길을 따라
5. 김묘진 / 산티산티
6. 변해수 / 엄마의 편지
7. 송재철 / 애증은 노을진 해변에서
8. 윤연옥 / 쉬운 말이 그리워
9. 최재효 / 六월에 내린 눈(소설)
10. 한미령 / 내 인생의 노트북
11. 신규철 / 바람이 그리는 수채화
12. 봉두개 / 봉두개 회곡집
13. 이 숙 / 노을처럼
14. 황홍구 / 그 여자네 집
15. 이영순 / 길
16. 김동빈 / 잠은 물고기 물 더주기
17. 정경해 / 시와함께 하는 그말
18. 차용길 / 얼굴로 피는 낙조는 붉은 와인 향이었다
19. 차용길 /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20. 최재효 / 뒤돌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21. 최재효 / 지옥이 있어야 천국이 있다

진원동화

1. 정경해 / 미안해 미안해
2. 한미령 / 세월호에서 온 편지
3. 정경해 / 동생이 태어났어요

진원자서전

1. 신원철 / 나는 富보다 명예를 선택했다

진원기타

1. 박창한 / 프라하의 봄은 오다(사진집)
2. 오순화 / 나무병원(조경)
3. 박성준 / 성지(聖地)의 흔적을 따라가며(성지순례후기)
4. 백예철, 송자 선교사 / 러브 잠비아(잠비아 선교체험기)



최재효 작가는 다양한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이다. 또한 문학의 모든 장르를 넘나드는 보기 드문 작가이기도 하다. 사회현실의 문제를 첨예하게 다루다가도, 종교적 문제에서는 모든 종파를 아우르는 합일의 정신을 풀어놓기도 한다. 또한 애끓은 사랑에서는 독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고향과 유년에 대한 향수를 그리다가도 도시문명의 지친 삶의 편린들을 예리하게 제시하는 종횡무애(縱橫無礙)한 작가임이 틀림없다. 최 작가의 글은 사계四季를 품고 있다. 윤회전생(輪回轉生)의 삼라만상을 보는 듯 본 수필집에서는 봄날 솟아오른 꽃봉오리처럼 눈물겨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아성찰에 녹아 흐른 각타의 미학이 강을 이룬 듯하다.

— 시인/수필가 月波 차용길

정가 15,000원



창작 수필집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글 최재효

도서출판
진 원

창작 수필집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글 최재효

도서출판 진원



저자 최재효

- 아호 여강(驪江), 여천(驪川), 여정(驪庭)
- 1960.4.4일 경기도 여주시 점봉동 86번지 출생
- 여주시 점봉초등학교(30회), 여주중학교(26회), 여흥고등학교(현, 여주대 전신) 3회 졸업
- 서울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60회) 졸업
- 文藝思潮, 韓國純粹文學으로 등단
- 2007 한국영농신문문학상 수상
- 2009 갯벌문학작가상 수상
- 창작 단편소설집 『유월에 내린 눈』 2007년
- 창작 시집 『사랑할 때 사랑해야』 2005 『흔들리는 것은 사랑을 한다』 2007 『달하 노피곰 도드샤』 2009 『꽃 피고 지는 사연』 2009 『그대 하늘 가』 2011
- 창작 수필집 『뒤돌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2015 『지옥이 있어야 천국이 있다』 2015
- 한국문인협회원 / 순수문학회원
- E-Mail : cjho96044@hanmail.net